

제주,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 전국 하위권

인구 1000명당 0.65명… 17개 시도 중 6번째로 적어
전문의 수는 71명으로 세종과 함께 100명 이하 지역
보건연구원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 불균형 시사”

제주지역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평균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과의 소아 진료 접근성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0.6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전국 평균은 0.80명이며,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인천(0.70명) 등도 평균보다 적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는 6490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에 전체의 46%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세종(78명)과 함께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살이의 단점 중 하나가 소아 전문 병원이 부족해서 응급 시에 병원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제주는 소아가 너무 부족해서 병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에서 2022년 395명으로 51.5% 감소했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공의가 감소하고 있어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소아청소년 전문의 분포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 취약지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김완근 제주시장이 4일 한림농협의 자두 정예소득 작목단지를 방문해 유통처리와 재배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제주시 제공

아열대 과일 ‘정예소득 작목단지’ 주목 제주시, 농가소득 향상 위해 2013년부터 55ha 규모 다품종·소량 생산에 주력… 올해 첫 레몬단지 추진

제주시가 농산물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망고부터 체리까지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시농협에서 레몬 정예소득단지를 조성해 추진 중이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예소득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16개 품목에 대해 214농가(54.9ha)를 지원했다. 재배 품목은 옹과, 자몽, 망고, 체리, 패션프루트, 바나나, 샤인머스켓, 자두 등 주로 아열대과일이다.

정예소득단지는 감귤과 월동채소류 위주의 발작물 재배에서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아열대과일 등 특화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취지의 사업이다. 참여농가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농협에 비닐하우스·물탱크 시설 등 생산유통 시설·장비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생산품의 안정적 유통

을 위해 공동선별·공동출하 방식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된다. 지난해에는 신규 단지 조성은 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단지에 냉·난방기·보온커튼 등 보완사업 위주로 1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는 30억원을 지원해 ▷제주시농협의 레몬(10농가, 2.8ha) ▷김녕농협의 심채소(13농가, 2.8ha) ▷귀덕새마을농협법인의 블루베리(10농가, 3.2ha)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4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자두 정예소득단지를 방문해 유통처리와 재배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2022년 한림농협에서 조성한 자두 작목단지는 10농가·3ha 규모로 ‘비퍼플’, ‘블랙킹’, ‘프레지던트’ 품종의 푸른 자두를 재배하고 있다. 품종별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수확해 한림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된다.

문미숙기자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개최일 또 변경

2018년 11월 개최로 시작
작년 10월→ 올해는 9월에
작년부터 일정도 하루 행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사적) 일원에서 펼쳐지는 ‘항파두리 역사문화제’가 올해로 7화제를 맞는 가운데 행사 시기가 또다시 변경됐고 작년에 이어 기간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항파두리 역사문화제’는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기리고 항파두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18년 ‘항파두리 해원문화제’에서 출발했다. 이듬해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 시기의 2020년을 제외하고 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이 과정에 매년 11월 열렸던 행사는 지난해부터 10월로 변경됐다. 기간도 종전 이틀에서 작년부터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는 9월로 또 변경해 13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이에 삼별초 입도 등 역사적 연관성을 찾아 개최 시기를 못 박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도 세계유산본부의 ‘제2차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 정비계획’ 용역 보고서(2024)에 담긴 항파두리 인근 지역 주민 설문(80명 참여) 결과를 보면 ‘기존 행사인 항파두리 역사문화제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대 운영’을 원하는 답변(다중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행사 날짜를 고민해 왔지만 사료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행사장이 중산간이어서 11월, 10월에도 날씨가 조금 춥다. 그래서 9월로 앞당기게 됐다. 기간은 줄었지만 프로그램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파두리 역사문화제’는 성읍리 취타대의 길트임 행사와 제주도립무용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개막식에 이어 탐라무예단 공연, 역사 퀴즈쇼, 토성 걷기 등이 잇따른다. 항몽 순의비 만들기, 역사 사생 대회, 전통놀이, 전통 의상 체험, 승마 체험, 플라마켓 등도 마련된다. 전선희기자



차량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제주시 노형동 푸른 제1공영주차장.

제주시 제공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복층으로 100대 주차… 재활용도움센터·화장실도

제주시 노형동에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복층 공영주차장이 완공돼 심각한 주차난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KT&G 인근에 원노형 푸른 제1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는 무료로 시범운영 중이다.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된 이 주차장은 지상 4층, 5단 규모(연면적 3724.14㎡)로 조성돼 차량 100

대를 수용할 수 있다. 기존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당시 주차 규모는 30대였다.

주차장에는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와 화장실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무료 개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면 무료로 운영된다.

문미숙기자

학교숲 조성 희망 학교 접수 현재 서귀포시 26개교 조성

서귀포시는 이달 12일까지 2026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희망 학교를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기존에 산림청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된다.

시는 조성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심사 후 10월 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각각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태충초와 의귀초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 학교에 학교숲을 만들었다.

문미숙기자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그린다’·농업·관광 분야

제주연구원 미래기획 전략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과거 제주 도정을 리뷰하고, 민선 8기 도정 진단과 후속 과제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가 직면한 산업·사회·기술·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후속 과제 반영과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도민 의견을 경청합니다.

개최 개요

주제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그린다’·농업·관광 분야

일시

2025년 9월 9일(화), 15시(현장 등록 14시부터)

장소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비인) 공연장

주최/주관

제주연구원

참석대상

도민, 해당 분야 전문가·자생단체장·관계기관장 등 100명 내외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내용
현장등록	14:00~15:00	
개회		· 소개 - 내빈 소개, 국민의례
주제발표 ①		· (농축산) 제주 농축산분야의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 - 발제자: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②		· (관광) 제주관광산업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 발제자: 신학승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분야별 토론		· 도민 질의응답 및 토론
폐회	16:05~16:10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4·3 희생자유족회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4·3 victims

제13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 개최 안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3회 제주4·3 유족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장에서 평화와 인권이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4·3 유족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다을

일시

2025년 9월 14일(일)
오전 10시 00분-개회식
※ 9시부터 입장 및 접수, 9시 30분 부터 식전공연 예정

장소

제주4·3평화교육센터 일대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주최/주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문의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
(전화 724-4343~4)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김창범

제1회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한마음대회

제1회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한마음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일시

2025년 9월 7일(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봉개동문화체육센터
(봉개북3길 6)

주최/주관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후원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2025년 제6회 현마공신 김만일상 후보자 추천 공고

*현마공신 김만일은 조선시대 전국 최대 개인목장을 운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시 수천 필의 땅을 현마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호국영웅입니다.

*현마공신 김만일의 실형정신, 도전정신,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말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공복체를 위해 출선수범하는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자 제6회 ‘현마공신김만일상’ 후보자 추천 공고합니다.

2025. 9. 5.

1. 추천대상

가. 육성 부문 : 말의 육성분야에서 명마로 불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개선하거나 수의분야, 임상분야, 경주마 육성, 씨수말 육성 등 말산업 육성분야에 공헌한 자(단체)

나. 학술 부문 : 김만일의 업적, 말의 연구, 말 산업의 홍보 등 학술·문화 분야에 공헌한 자(단체)

2. 추천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시장, 군수, 구 단위 이상 각급 단체의 장 등
나.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20명 이상의 연서
다.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3. 접수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5일(수) 18:00

4. 심사 및 수상자 결정

결과 개별 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공지

5. 시상식

가. 시상인원 : 총 2명 육성 부문 1명(단체), 학술 부문 1명(단체)
나.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부문별 각 5백만원)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후원입니다.
다. 공고문은 본회(kmi.com)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10 2430 3443)로 문의 바랍니다.

(사) 현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이사장